

영어문장형식과 발언행위

최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물이 처하여있는 정황에 따라서 같은 사상감정을 나타내면서도 말은 달리질수 있고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20페이지)

외국어언어행위에서 교제의 정확성은 주어진 언어정황에 따르는 문장의 의미실현으로 담보된다.

언어행위에서 문장의 의미실현문제는 반드시 언어정황을 전제로 한다. 특히 교제적언어정황은 문장의 의미실현에서 문맥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교제적언어정황과 문장의 의미실현문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내는것은 외국어교수에서 보다 알맞는 문장선택기능을 키우며 보다 효과적인 교수수법들을 찾아낼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영어문장론에서는 영어문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가에 따라 네가지(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로 나눈다.

그런데 발언행위의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문장형식이 자체의 진술목적에 따라 알림, 의문, 명령, 감탄의 기능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어용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는것, 명령문으로 명령을 하는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문문으로는 질문뿐만아니라 요청, 초청, 제의, 부탁, 사죄, 감탄 등의 발언행위를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한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어용적의미를 나타내는 힘을 발언의 힘 또는 발언력이라고 한다. 발언의 힘에 의하여 의도행위가 나타내는 어용적의미인 말밖의 참뜻과 효과행위가 해석된다.

일부 학자들은 발언의 힘에 의하여 말의 진짜뜻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을 《말밖의 참뜻》이라고 뜻풀이하기도 한다.

발언의 힘에 따라 의도행위는 보고, 진술, 단언, 알림, 명령, 초청, 요청, 제의, 충고, 물음, 제공 등 여러가지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발언의 힘에 따라 효과행위를 풀이하면 설복, 고무, 협박, 기만, 성나게 함, 만족주기, 안심시키기, 감명을 줌, 당황하게 함 등의 효과나 영향, 결과가 나타난다.

문장형식과 발언의 힘은 반드시 1:1로 대응하는것이 아니다.

한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다른 발언의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례를 들면 명령문이 문맥이나 언어정황에 따라 명령, 권고, 충고, 초청, 협박 등의 발언의 힘을 나타낸다.

례: Lend me 10£.(명령)

Have another beer.(권고)

Don't drink water too much.(충고)

Don't move or you will be shot.(위협)

의문문으로 질문뿐만아니라 언어정황에 따라 요청, 초청, 제의, 부탁, 사죄, 감탄 등의 발언의 힘을 나타낸다.

례: Do you know his place of residence?(질문)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place on Sunday?(초청)

Will you please shut the door?(요구)

Isn't he a man of many gifts!(감탄)

반대로 서로 다른 여러 문장형식이 하나의 같은 발언의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① 명령:

— Go home!(명령문)

— I command you to go home.(서술문)

② 부탁:

— Please pass the salt.(명령문)

— Would you mind passing the salt?(의문문)

③ 사죄:

—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ies.(명령문)

— Will you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ies?(의문문)

— I apologize most sincerely.(서술문)

④ 초청:

— Do let me take you to see “Hamlet” on Friday.(명령문)

— Would you like to come and see “Hamlet” on Friday? (의문문)

⑤ 질문:

— Do you know the victim?(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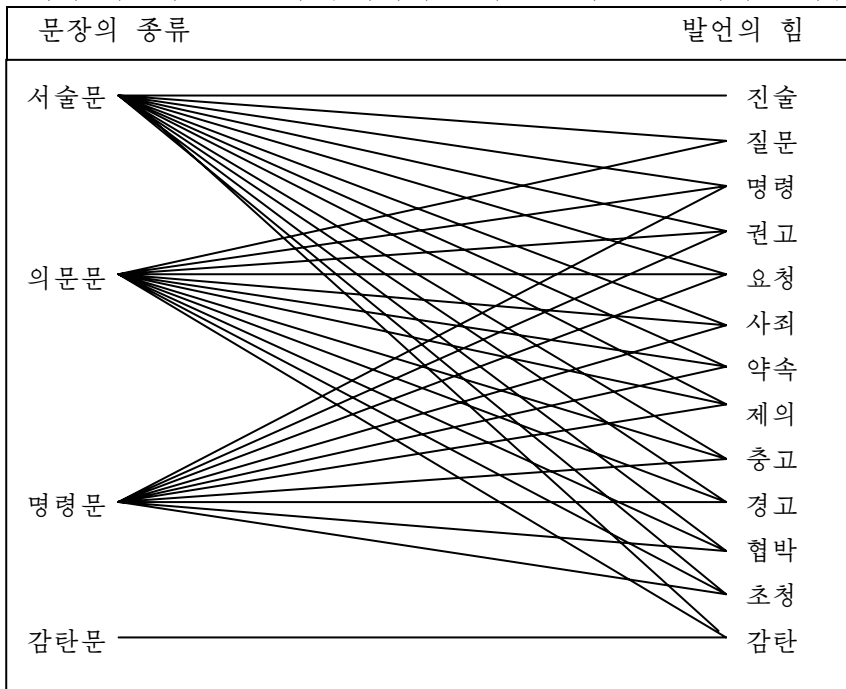
— I ask you whether you know the victim.(서술문)

⑥ 감탄:

— Hasn't she a marvelous voice? (의문문)

— What a marvelous voice she has! (감탄문)

문장의 형식과 대표적인 발언의 힘사이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것처럼 거의 모든 문장들은 여러가지의 의도행위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르는 발언의 힘, 말밖의 참 뜻을 나타낸다.

한가지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의도행위를 수행한다는것은 그 문장형식과 의도행위가 일치할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일련의 규칙이 있게 된다. 즉 일정한 문장형식에는 어떤 의도행위가 대응된다는것이 정해져있다고 볼수 있다.

실례를 들면 의문문이 질문, 요청, 사죄, 제의, 충고, 초청 등의 행위와 대응한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의문문으로 진술행위를 한다면 감탄문으로 명령행위를 한다면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임의의 문장형식으로 임의의 의도행위를 다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수사학적의문문이 의문문이지만 이것으로 《단언》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례로 영어문장 《Who knows it? (누가 그걸 안단 말인가?)》는 형식이 의문문이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회화함의의 견지에서 보면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따라서 수사학적질문도 일종의 단언이라고 볼수 있다.

우의 실례는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발언의 힘만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발언행위를 보충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어떤 하나의 발언행위가 수행됨으로써 다른 발언행위가 간접적으로 수행된다는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참가자들과 서로 알고있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배경지식에 의거하여 그리고 듣는 사람의 일반적리성과 추리능력을 리용하여 자기가 한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손님 A와 판매원 B사이의 대화를 실례를 들어 분석하여보자.

A: Do you have any printers?

(인쇄기가 있습니까?)

(거래의 예비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 인쇄기가 있으면 사겠다는 의사를 암시한다.)

B: Jet or Laser?

(분사식말입니까 아니면 레이자식말입니까?)

(상품의 선택안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예비조건을 마련한다.)

A: Jet printer, please.

(분사식인쇄기를 주십시오.)

(제시된 상품중의 하나를 요구하여 거래를 시작한다.)

이 문맥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발화행위의 효력을 나타내는 수단인 please가 없이 명사구 하나만 가지고서도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이다.

B: That'll be £36.

(36£입니다.)

(상품가격을 말함으로써 돈을 물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을 한다.)

A: OK.

(돈을 내면서) 좋습니다.

(거래에서 구매자측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판매계약에 동의한다.)

B: (돈을 받고 상품을 넘겨준다.)

Have a nice day.(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거래에서 판매자측의 의무를 수행하고 관례적인 작별인사로서 대화를 끝맺는다.)

우의 실례에서 본 것처럼 언어교제에서 대화자들은 각자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내에서의 발언행위들을 그 호상관계를 고려하여 차례로 배열한다. 그리하여 언어교제가 논리정연한 하나의 회화본문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해당한 문장이 언어환경에 따라 어떠한 발언행위를 수행할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교육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